

2026 국립정동극장 레퍼토리 공연투어 제안서

1. 뮤지컬 <피리 부는 사나이>
2. 연극 <굿모닝, 홍콩>
3.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 <서천꽃밭 이야기>
4. 판소리 음악극 <긴긴밤>
5. 발레 <황폐한 땅(블랙 크리스마스)>
6. 전통연희극 <광대:GWANGDAE>



국립정동극장 소개

(재)국립정동극장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 '원각사'의 복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근현대 예술정신을 계승하며 1995년 '정동극장'으로 개관,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과 새로운 시도들로 관객들과 만나왔습니다.

한국 근현대 문화의 출발지 정동길에 위치한 정동극장은 다양한 장르 공연을 통해 더 많은 공연예술인들과 관객이 만날 수 있는 현대 공연 예술의 현장입니다.

국립정동극장은 관람객에게는 우수 콘텐츠와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창작 초기 단계를 걸친 공연 중 발전 가능성이 큰 작품을 발굴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육성·지원·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작극장으로서 공연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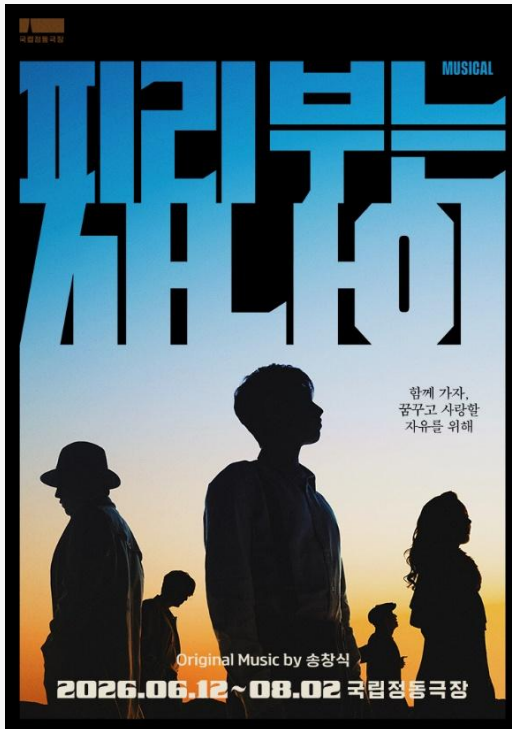
극장 간 운영 역할

국립정동극장	초청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작품별 제작 ○ 프로덕션 운영 및 공연 관련 현장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준비-무대 셋업-리허설-공연-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정동극장 초청료 지급(작품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켓수입은 초청 공연장으로 귀속 ○ 극장 및 분장실 제공, 홍보 및 하우스/티켓 운영

2026 국립정동극장

기 획 공 연
작 품 소 개

국립정동극장 < 기획공연 > 작품



1. 뮤지컬
 <피리 부는 사나이>



2. 연극
 <굿모닝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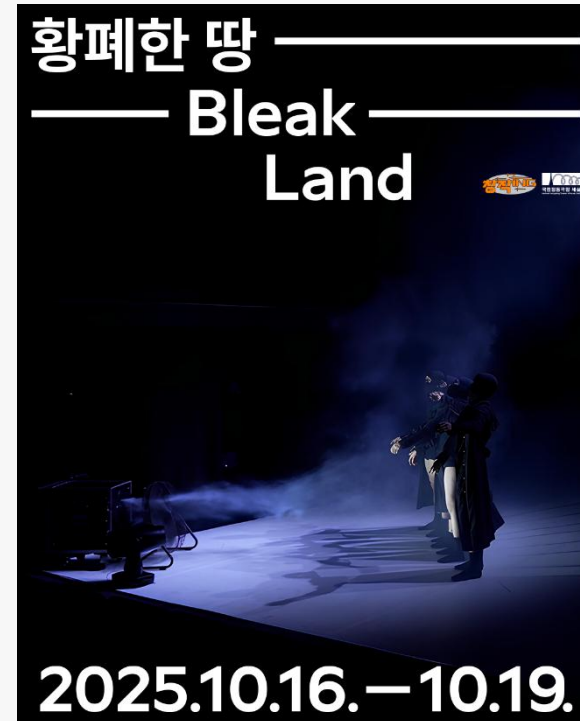
3.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
 <서천꽃밭 이야기>

<기획공연 투어공연 문의> 국립정동극장 공연기획팀 이진수 팀장 : 010-6350-5355 / (02-)751-1938
 국립정동극장 공연기획팀 문효원 차장 : (02-)751-1931

국립정동극장 < 기획공연 > 작품



4. 판소리 음악극
〈긴긴밤〉



5. 발레
〈황폐한 땅(블랙 크리스마스)〉

<기획공연 투어공연 문의> 국립정동극장 공연기획팀 이진수 팀장 : 010-6350-5355 / (02-)751-1938
국립정동극장 공연기획팀 문효원 차장 : (02-)751-1931

1. < 피리 부는 사나이 > 투어 소개

한국 포크 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송창식의 음악으로 구성된 주크박스 뮤지컬
 익숙한 명곡과 탄탄한 드라마가 결합되어 세대를 아우르고 감동
 같은 시대, 다른 길 위에 선 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슴 뜨거운 질문의 무대 선사



작 정찬수 | 편곡 박재현, 강택구 | 연출 심설인 | 음악감독 박재현 외

(장르) 뮤지컬

(시간) 115분 / 인터미션 없음

(셋업/리허설) 4일

(투어가능 기간) 2026년 9월 ~ 11월

(공연가능 무대 사이즈) 가로 14m x 세로 11m *현장 규모에 따라 공연 사이즈 조절 가능

(참여인원) 출연진 12명 / 스태프 외 총 40여명

(제작) 국립정동극장 | 주식회사 아트로버컴퍼니

(작품 초청비용) 2일 2회 / 60,000,000원

* 공공제작극장의 역할을 위해, 초청 비용 외 국립정동극장에서 추가 비용은 지원합니다.

1. < 피리 부는 사나이 > 투어 소개

어릴 적부터 노래를 불러온 청년 '영수'. 지금은 경성의 스타 '지혜'를 동경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형인 '영기'는 한가롭게 노래나 하는 그를 힐난하고 '다이키치'가 된 소꿉친구 '대길'은 집요하게 의열단의 행적을 쫓는다.

엇갈린 관계들 속에 일제의 폭압이 거세지고, 어린아이까지 희생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제서야, '영수'는 어린시절 '대길' 이 던진 질문의 답을 찾는다.



2. <굿모닝 홍콩> 투어 소개

신선한 소재와 흥미로운 접근 방식으로 시대정신을 묻는다.

무대에서 만나는 장국영과 홍콩영화, 1980~90년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했던 홍콩으로 떠나는 추억여행!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층에도 향수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레토르 감수성!



작 이시언 | 연출 최원종 외 | 출연진 김동현, 최영도, 공민재, 김수아, 김수민, 차호진 외

(장르) 연극

(시간) 100분 / 인터미션 없음

(셋업/리허설) 3일

(투어가능 기간) 2026년 7월 ~ 12월

(공연가능 무대 사이즈) 가로 12m x 세로 10m *현장 규모에 따라 공연 사이즈 조절 가능

(참여인원) 배우 18명 / 스태프 외 총 35여명

(작품개발) 극단 명작옥수수밭

(제작) 국립정동극장

(작품 초청비용) 2일 2회 / 40,000,000원

* 공공제작극장의 역할을 위해, 초청 비용 외 국립정동극장에서 추가 비용은 지원합니다.

2. <굿모닝 홍콩> 작품소개

장국영과 나이키를 찾아 떠난 홍콩에서, 세계 시민이 되다!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배우 장국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사모 회원들이 홍콩으로 추모 여행을 떠나며 벌어지는 이야기. 오마주 영상을 찍기 위해 장국영의 영화촬영지를 순례하던 장사모 회원들은 의도치 않게 홍콩 시위대에 휩쓸리게 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위대의 투쟁에 공감하게 된다.

이 과정은 한국의 민주화 시위가 지나버린 역사가 아니라 동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3. < 서천꽃밭 이야기 > 투어 소개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

제주 무가에 남겨진 영험한 꽃밭의 신화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소리, 우리의 그림으로 재탄생



작·연출 손상희 | 작곡 음악감독 연리목 | 무대·오브제디자인 송성원 외

(장르)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
(시간) 50분 / 인터미션 없음
(셋업/리허설) 3일

(투어가능 기간) 2026년 6월 ~ 12월

(공연가능 무대 사이즈) 가로 11m x 세로 8m x 높이 5m *현장 규모에 따라 공연 사이즈 조절 가능

(참여인원) 소리꾼 1명 / 배우 5명 / 연주자 3명 / 스태프 외 총 30여명

(작품개발)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

(제작) 국립정동극장

(작품 초청비용) 2일 2회 / 25,000,000원

* 공공제작극장의 역할을 위해, 초청 비용 외 국립정동극장에서 추가 비용은 지원합니다.

3. < 서천꽃밭 이야기 > 작품 소개

서쪽으로 천리를 걸어 '저세상'으로 가는 길목 끝에
 끝없이 펼쳐진 꽃밭이 있었으니, 이를 '서천꽃밭'이라고 하였더라.
 그런데 이 꽃밭에는 '웃음웃을꽃' '도환생꽃' '싸음싸울꽃' '수레멸망약심꽃'...
 이름하나부터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었구나.

그런데 이 특별한 꽃밭을 지키는 사라도령에게는
 어려서 혼약하고 헤어진 원강아미라는 아내가 있었다.
 배 속에 아기를 품고 있던 원강아미는 서천으로 가는 멀고도 험한 길에 발병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천년장자의 집에
 몸을 위탁하게 된다. 이곳에서 아비 없이 태어난 한락궁이는 어미를 홀로 남겨두고 아비를 찾아 길을 나서리로 마음 먹는데,
 길을 나선 아이는 무사히 아비인 사라도령을 찾아갈 수 있을까?



4. < 긴긴밤 > 투어 소개

음악과 이면, 판소리와 연극이 결합된 새로운 양식의 판소리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나'로 살아갈 용기와 함께 걷는 이가 우리의 삶에 '기적'임을 깊이 깨닫게 한다.



작·연출 이상숙 | 작곡·음악감독·고수 이향하 외

(장르) 판소리 음악극

(시간) 80분 / 인터미션 없음

(셋업/리허설) 2일

(투어가능 기간) 2026년 10월 ~ 12월

(공연가능 무대 사이즈) 가로 11m x 세로 8m x 높이 5m *현장 규모에 따라 공연 사이즈 조절 가능

(참여인원) 소리꾼 1명 / 배우 1명 / 고수 1명 / 연주자 1명 / 스태프 외 총 20여명

(작품개발) 입과손스튜디오

(제작) 국립정동극장

(작품 초청비용) 2일 2회 / 25,000,000원

* 공공제작극장의 역할을 위해, 초청 비용 외 국립정동극장에서 추가 비용은 지원합니다.

4. < 긴긴밤 > 작품 소개

이 이야기는 세상에 마지막 남은 흰바위코뿔소 노든의 로드무비다.
 노든은 자신의 처음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다.
 어려서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란 노든은 자신의 걸모습이 다른 코끼리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코뿔소였다.

자신을 보살펴주던 코끼리 할머니의 응원으로 코뿔소의 삶을 살기 위해 바깥세상에 나온 노든은
 자신과 닮은 코뿔소 한 마리를 만나 가족을 이루게 된다.
 허나,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날들을 즐기던 그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인간들의 횡포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은 노든은 남은 생을 인간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그의 앞에 안타깝게 버려진 어린 펭귄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5. < 황폐한 땅 > 투어 소개

젓빛 세계에서 펼쳐지는 우아한 동화,

기묘하게 아름다운 재해석, 호두까기 인형이 황폐한 땅에 되살아난다



안무 김성민 | 연출 이윤지 | 드라마투르그 강태영 외

(장르) 발레

(시간) 60분 / 인터미션 없음

(셋업/리허설) 3일

(투어가능 기간) 2026년 7월 ~ 12월

(공연가능 무대 사이즈) 가로 11m x 세로 7m x 높이 11m (최적화) *현장 규모에 따라 공연 사이즈 조절 가능

(참여인원) 무용수 8명 / 스태프 12명 외 총 20여명

(작품개발)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제작) 국립정동극장

(작품 초청비용) 2일 2회 / 25,000,000원

* 공공제작극장의 역할을 위해, 초청 비용 외 국립정동극장에서 추가 비용은 지원합니다.

5. < 황폐한 땅 > 작품 소개

어디를 둘러봐도 안개다.

저 앞 흐르는 강 상류에도 안개가 푸른 섬과 목장 사이를 흘러간다. 강 하류에도 안개가 자욱하다.

이곳에서는 수없이 정박한 배들 사이와 이 커다란 그리고 더러운 도시의 지저분한 강기슭을

더러운 안개가 소용돌이를 그리며 지나간다. 저 도시 위 한 건물 주변도 안개요, 구름 위도 안개다.

건물 안 한 곳 난로 옆에서 콜록거리는 한 사내의 눈과 목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가고, 공연히 성질난 부랑자가 비좁은 자기 방에서 피워대는 오후의 담뱃대에 기어들어 가고, 건물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소녀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매몰차게 꼬집는다.

건물 밖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난간 너머로 하늘에 낮게 깔린 안개를 바라본다.



2026 국립정동극장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작품소개

국립정동극장 < 예술단 공연 > 작품



6. 전통연희극

<광대 : GWANGDAE>

<예술단 투어공연 문의> 국립정동극장 문화사업팀 구민호 팀장 : (02)751-1943 / 010-7105-4640 / kmh@jeongdong.or.kr
김희영 과장 : (02)751-1942 / bestmiso@jeongdong.or.kr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전통예술의 아름다움, 그 위에 새기는 시대의 교감”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은 한국무용, 사물놀이, 타악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이 어우러진 전통 연희극 단체를 지향합니다.

전통예술의 아름다움과 정신적 가치를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며, 많은 관객들과의 소통을 추구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시대와 인간이 교감하는 새로운 전통예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 세계와 함께 모두에게 먼저 다가가는 예술단이 되겠습니다



6. 전통연희극 < 광대: GWANGDAE > 소개

“연습중인 공연장에 갑자기 나타난 백년의 광대들!”

현재와 과거, 시간의 벽을 넘나들어 오들의 광대들과 밤새 놀다

“광대가 뭐 별간? 놀아야 광대지!”

웃음반발! 광대폭발! 진짜 광대들이 선보이는 신명나는 무대



작 강보람 | 연출 안경모 | 안무 이규운 | 음악감독, 작곡 신창렬 외

(장르) 전통예술 / 전통연희극

(시간) 80분 / 인터미션 없음

(셋업/리허설) 3일

(투어가능 기간) 2026년 6월 ~ 10월 (이외 기간은 협의에 따름)

(공연가능 무대 사이즈) 가로 15m, 세로 15m *현장 규모에 따라 공연 사이즈 조절 가능

(참여인원) 출연자 21명 / 스태프 15명 / 총 36명

(제작) 국립정동극장

(작품 초청비용) 1일 1회 / 45,000,000원

* 공공제작극장의 역할을 위해, 초청 비용 외 국립정동극장에서 추가 비용은 지원합니다.

6. 전통연희극 < 광대: GWANGDAE > 소개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전통연희 대표작품

2021년 예술단 공식 창단 이래 전통연희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레파토리 작품으로

예술단의 무용, 타악, 연희를 비롯하여 소리, 줄타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작품

협률사(協律社)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戲)

근국립정동극장의 건립 이념 ‘원각사 복원’의 원각사(극장)의 전신이자, 1902년 고종 재위 40주년 경축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률사(協律社)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 무대공연인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戲)」를 모티브로 하여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

<시놉시스> _ “텅 빈 공연장이 안타까워 나타난 백년의 광대들!

현재와 과거, 시간의 벽을 넘나들며 오늘의 광대들과 밤새 놀다”

순백과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은 1902년 협률사가 공연한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戲)>를 복원해 <2026 소춘대유희> 공연을 올리고자 한다. 하지만 예술단 단장 순백의 실수에 수석 단원 두리까지 가세해 공연이 즉흥으로 꼬이고 순백은 부상마저 당해 당분간 공연이 중단이 된다.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텅빈 극장에서 소리 한 자락 시작하는 순백. 극장 내부에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감돌더니 오방신의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던 백년광대들이 앞다투어 모습을 드러낸다. 기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기묘하게 변해버린 극장에 당황한 순백. 그런 순백 앞에 한 정체불명의 아이 하 나가 나타나 길을 찾고 싶으면 자기를 업고 가라고 한다. 소리꾼 아이와 함께 가는 곳에서 순백과 두리는 백년의 광대들을 만난다. 백년 전부터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던 춤광대. 재주광대, 소리광대 귀신들이 매일 밤 자신들만의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살아있는 후배를 데려오니 더욱 신난 광대들의 환대에 차차 마음이 열리는 순백. 어릴 적 처음 광대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 희열과 즐거움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어느덧 새벽이 가까이 오자 백년광대들은 사라지고, 아이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더니 한 노인네의 모습으로 변한다. 아, 그는 순백이 그토록 흠모하던 이동백 명창이었다! 함께 새타령을 주고받으며 마음 깊숙이 짜릿한 즐거움을 느끼는 순백. 이동백 명창은 후배 광대들을 위로해주며 지금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것이 광대의 역할이자 기쁨임을 알려준다. 아침이 오고, 다시 시작된 소춘대유희 공연. 순백과 두리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신명나게 공연을 시작한다.

6. 전통연희극 < 광대: GWANGDAE > 소개



※ 상기 무대 장치 이미지는 2025년도 공연 기준으로 2026년 공연의 무대 장치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국립정동극장 레퍼토리 공연 투어 제안서

감사합니다.

